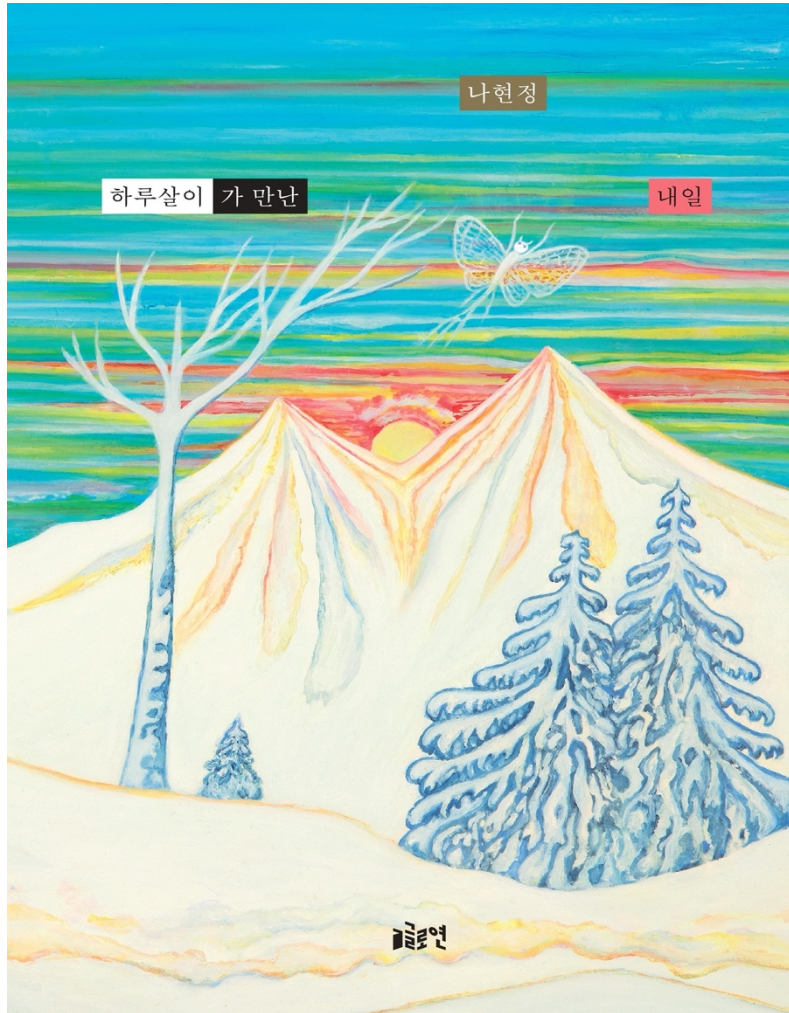


# 하루살이가 만난 내일

나현정 글·그림



주제	등장인물의 삶의 태도를 탐색하고 내 삶과 연결하여 내일의 의미 표현하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하루살이, 내일, 미래, 최선, 삶의 의미, 태도, 가치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5-0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미술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와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오늘의 시간만 주어진 하루살이가 찾는 내일, 그리고 그 의미

아름다운 꽃밭에서 깨어난 하루살이가 매일 아침 이런 곳에서 하루를 맞으면 좋겠다고 감탄하자 새가 말합니다. “너에게도 내일이 있을까?” 하루살이는 들어본 적 없는 ‘내일’에 대해 알고 싶어 여행을 떠납니다. 어린 풀들에게 내일은 한 뼘씩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고, 창가의 시든 꽃들은 다시 피어나는 것이 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내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어항 속 금붕어에게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하루일 뿐이라 하지요. 하루살이는 바다와 소녀, 그리고 애벌레를 연이어 만나며 그들이 생각하는 내일에 대해 묻고 답을 들으며 눈 덮인 산속까지 날아갔습니다. 산속에 있는 집 안에서 사랑스러운 아기를 기다리며 아름다운 천을 짜는 여인은 내일이 아프고 힘겨운 곳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고양이가 하루살이를 낚아채려 달려들고, 하루살이는 고양이를 피해 눈밭으로 도망치는데???. 과연 하루살이는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내일’을 만났을까요?

## ■ 학습 목표

- 등장인물이 한 말과 행동으로 삶의 태도를 탐색할 수 있다.
- 내 삶과 연결하여 내일의 의미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글자의 배치와 디자인이 그림책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며 의미를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명확하다고 느꼈다. 눈 덮인 산등성이 사이로 노란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노랗고 붉은 태양 빛이 푸른 하늘과 설산에 비친 모습을 다채로운 색으로 아름답고 신비롭게 그려냈다. 제목 ‘하루살이가 만난 내일’ 사이로 하루살이가 날아오르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하루살이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을까?’ 하루살이가 정말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 찾아보니 어떤 하루살이는 일주일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저녁 무렵 하루살이 떼가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걸 여러 번 본 적 있는데 그건 생의 마지막에 짝짓기를 위한 몸부림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루살이가 만난 내일』을 함께 읽고 하루살이와 관련된 과학 지식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교안은 인물과 그의 삶의 태도, 그림책의 글자 디자인(타이포그래피)에 초점을 두고 작성했다.

하루살이가 만난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생각하는 ‘내일’의 의미를 인물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나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일을 찾아 모험하는 하루살이의 삶의 태도를 탐색한다. 글자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글자의 배치와 글자 배경색에 대해서도 인식한다면 다양한 시선으로 그림책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수업 준비물

그림책, 붙임 종이, 색종이

##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동기 유발	
	표지 살펴보기	
읽는 중	그림책 읽기	2차시
	등장인물 탐색하기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소감 나누기	
읽은 후	하루살이 초대하기	1차시
	내일 표현하기	1차시
	문장 완성하기	1차시
	<b>【선택활동】</b> - 디자이너가 되어	

# 읽기 전

## 1. 동기 유발

### ■ 마음 열기

- 다섯 고개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예: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1. 나는 곤충입니다.
2. 불완전탈바꿈을 하며 애벌레의 경우, 하천이나 습지 등지에서 서식합니다.
3. 시, 소설에서 '짧은 인생', '하찮은 삶'을 표현할 때 저를 빌려 사용합니다.
4. 저는 수명이 짧은 편으로 일주일 내외를 살다 죽기 때문에 제 이름을 얻게 되었다.
5. 사람들은 나를 '날파리', '날벌레' 라고도 부릅니다.

Tip. 등장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하루살이 사진과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나는 누구일까요?'로 마음열기 활동을 한다. 하루살이의 사진을 일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여주고 알아맞히는 방법으로 마음열기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양하루살이의 날개, 꼬리, 배부분 등을 차례로 확대해서 보여준 뒤 전체 모습을 상상한다.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그 밖에 하루살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봅시다.

예: 하루살이는 일생의 대부분을 유충으로 물속에서 살고 여러 번 탈피를 해요.

### ■ 경험 나누기

- 하루살이를 본 적이 있나요? 하루살이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학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살이 무리가 날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캠핑장에서 잠자리가 날고 있어서 봤는데 근처에 많은 하루살이가 날고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동네를 걷고 있는데 하루살이 무리가 제 키 정도에서 날고 있어서 아빠가 손을 저어 하루살이를 쫓았던 기억이 있어요.



## 2. 표지 살펴보기

### ■ 제목과 그림 살펴보기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예: 푸른 하늘을 뚫고 태양이 노랗고 붉은빛을 내며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해질녘의 모습 같아요. 파란 하늘에 노을 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눈으로 덮힌 산과 나무가 눈에 띄어요. 배경이 겨울 숲 같아요.

해가 설산에 비쳐서 산이 노랗고 붉게 물든 모습을 여러 색으로 잘 표현했어요.

하루살이가 제목 '하루살이가 만남'과 '내일' 사이로 날아오르고 있어요.

하루살이를 흰색으로 그렸는데 투명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목과 작가 글자 뒤에 배경색이 들어 있는 게 특이해요.

하늘, 산, 나무, 해, 생명 등 아름다운 자연을 그린 한 폭의 미술 작품 같아요.

Tip. 그림책을 펼쳐 앞표지부터 뒤표지까지 연결된 그림 전체를 보여준다. 처음부터 표지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제목을 살짝 가린 뒤 먼저 그림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그림에서 주로 쓰인 색깔과 배경, 그림에서 받은 인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있는 존재(하루살이)를 인식한 뒤 제목과 관련 지어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보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 ■ 내용 예상하기

- '내일'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예: 아침, 해, 희망, 기다림, 미래, 꿈 등

Tip. 짝 또는 모둠활동으로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확장하고 심화해 나갈 수도 있다.

-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극적으로 이들을 살게 되는 희망적인 내용 같아요.

하루살이는 하루 밖에 살지 못하니까 내일 무슨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이야기 같아요.

Tip.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 ■ 면지와 속표지 살펴보기

- 면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초록색 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초록색 사이에 노란색도 보여요.

초록색 사이에 경계가 보여서 모내기한 논 같아요.

- 속표지를 살펴봅시다. 제목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예: '하루살이' 글자 뒤에는 배경색이 없는데 '가 만남'에 검정, '내일'에는 체리레드, 작가 '나현정'에는 고동색 글자배경색(음영색)을 입혔어요.

## 1. 그림책 읽기

### ■ 내용 확인하기

- 하루살이가 허물을 벗고 물 밖으로 나와 처음 만난 바깥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들판이에요.
- 하루살이는 어떻게 자신이 하루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기 전에 물속에서 유충으로 사는 동안 자신의 한살이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 하루살이가 알고 싶어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내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 하루살이는 날아간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예: 들판, 바다, 책 속, 눈 덮인 숲, 방 등
- 하루살이가 바깥세상으로 나와 만난 인물을 누구누구인가요?  
예: 새, 어린 새싹, 꽃, 노인, 금붕어, 물결, 소녀, 애벌레, 눈, 늑대, 여자, 고양이, 하얀 꽃

### ■ 타이포그래피 읽기

- 본문은 그림책 네 가지 색깔 박스에 글을 담았습니다.
- 흰색, 검정색, 체리레드색, 고동색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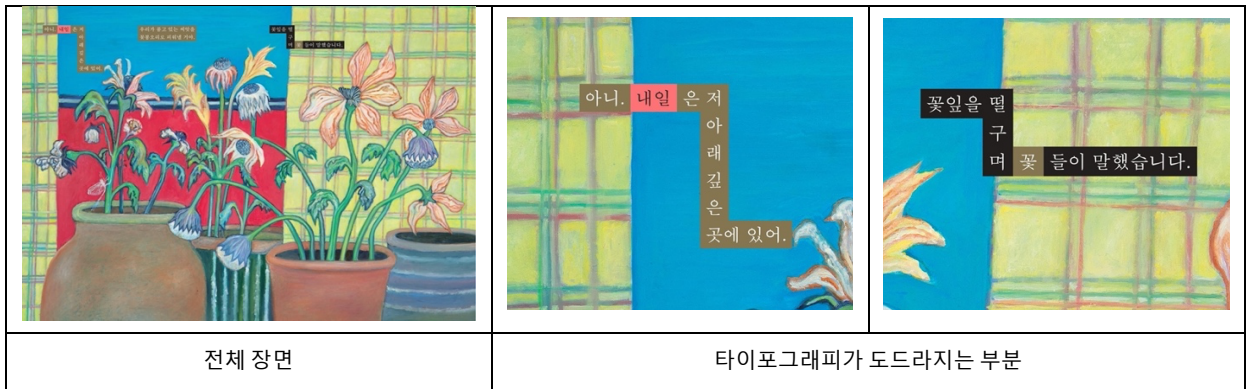
예:

색깔	의미
흰색	'하루살이'와 하루살이가 하는 말
체리레드색	'내일'
검정색	이야기를 서술할 때
고동색	하루살이가 만나는 친구들과 그들의 대화를 나타낼 때

- 화분 속 꽃을 그린 장면에서 그림과 활자 배치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저 아래 깊은 곳', '떨구며'라는 글자를 세로쓰기로 배열해서 꽃잎이 축 쳐진 그림과 어울려요.

'저 아래 깊은 곳', '떨구며'라는 글자의 의미와 글자의 배치, 그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Tip. 『하루살이가 만난 내일』은 시각적으로 내용에 맞게 글자를 배치하여 글자가 가진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여 글과 그림이 더욱 어우러지게 했다.

- 글자의 의미가 활자의 배치에 적용된 다른 장면도 찾아봅시다.

예: 하늘과 구름이 펼쳐진 장면에서 ‘먼 곳으로 가 봐야겠어.’의 글자 배치를 ‘먼’과 ‘곳으로’ 사이에 공간을 넓게 뒤서 ‘먼’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 장면에서 ‘넘실넘실’의 글자 배치를 일렬로 하지 않고 변화를 줘서 파도가 넘실대는 의미를 담아 잘 표현했어요.



Tip.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활판으로 하는 인쇄술, 편집 디자인 등에서 활자의 서체나 글자 배치 따위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일을 의미한다. 인쇄가 발달하여 표현의 제약이 없어진 지금은 넓은 의미로 글자를 다루는 모든 방법, 더 확장된 범위로 시각 언어에서 모든 조형적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 탐구하는 것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위키백과)

## 2. 등장인물 탐색하기

- 하루살이가 만난 등장인물들이 한 말로 인물의 상황이나 처지, 성격 등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예: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하루살이에게 한 말	인물의 상황이나 처지	인물의 성격 또는 마음
새	너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을 테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세상 일을 많이 안다.	솔직하고 현실적이다.
노인	내일도 이렇게 멋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일이 어둠 속에 있는 거라면.....	많이 노쇠한 상황	회의적이다. 삶에 대한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금붕어	이 곳에 온 후로는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 늘 같은 곳을 맴돌 뿐이야.	좁은 어항 속에 갇힌 상황	삶의 희망과 의욕이 없다.
소녀	응. 그래서 두근거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알 수 없으니까	앞으로 펼쳐 미래를 알 수 없어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상황	긍정적이다. 희망이 있다.
늑대	나에게 내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순간이 중요해.	설원에서 먹이를 눈앞에 두고 사냥하기 직전	현실적이다. 목표지향적이다.

- 하루살이는 어떤 성격 같나요?

예: 내일을 찾아 여기저기 모험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호기심이 많아요. 용감해요. 탐구심이 강해요.

다른 하루살이는 아무도 내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데 혼자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니 탐구심이 강하고 진지하고 신중한 성격 같아요.

Tip. 등장인물의 상황은 글과 그림에서 드러나고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단,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좋겠다.

Tip. 기존의 활자 배치법에서 벗어난 이 그림책은 문자로 이미지를 창조하는 독일의 구체시(具體詩, Concrete poetry)와 닮았다. 독일 구체시 시인들은 구두점을 없애거나 행간, 자간 등의 배치를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시어의 이미지를 시각화했고, 지면이 품은 의미 형성 가능성을 찾아 표현했다. 『하루살이가 만난 내일』은 글 상자 배경색과 의미를 따라가는 글의 동선 등을 통해 그림과 글이 이미지로 마주하는 효과를 주며 구체시를 떠올리게 한다.

독일 구체시 예시(‘메리 엘렌 솔트’의 <개나리> 등)를 보여주고 이 책에서 구체시처럼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자. 【선택활동】 ‘디자인어가 되어’와 연계하여 사물이나 시어를 구체시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표현력과 창의성을 끌어내도 좋겠다.

### 3.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인상 깊은 장면이나 표현 등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내일은 아름다운 곳에만 있지는 않아. 아프고 힘겨운 곳에도 있단다.  
하지만 괜찮아. 별처럼 반짝이는 내 아이를 만날 테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선물을 받는 거야.

하루살이가 아기를 가진 여자를 만난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여자는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평화로운 모습으로 뜨개질을 하는데, 별을 뜨개질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멋졌어요. 아기를 반짝이는 별,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선물이라고 표현한 걸 보고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하루살이는 지금 수많은 내일 사이에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 이 자리에 나의 내일을 그릴 거야.  
하루살이는 너울너울 자기만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눈송이가 흩날릴 때 하루살이가 혼자 춤을 추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루살이가 눈송이가 된 느낌이에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찾지 못했지만 모두의 내일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혼자 너울너울 자기만의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며 하루살이는 주체적인 인물 같아요.

### 4. 소감 나누기

#### ■ 작가의 의도 짐작하기

-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책을 썼을까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 봅시다.

예: 내일의 의미를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쓴 것 같아요.

하루살이가 비록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내일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며 뭔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의지와 마음가짐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상황과 위치에 따라 내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책을 읽는 사람에게 ‘당신의 내일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 ■ 그림책을 읽은 소감 이야기 나누기

- 그림책을 읽은 소감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그림이 한 장면 한 장면 다 아름답고 색감이 예뻐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림책이에요.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째 볼 때 더 좋은 그림책이에요.

마지막에 내일을 찾아 모험하던 하루살이가 꽃 위에서 죽는 것 같아서 좀 슬펐어요.

글자 배치와 글자 배경색이 특별한 그림책이에요. 이제 다른 그림책을 볼 때 그림과 내용 뿐 아니라 글자 모양이나 글자 배치 같은 형식적인 부분도 함께 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책을 보니 다양한 시각에서 그림책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 읽은 후

Tip. 읽은 후 활동을 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읽은 후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는 시간을 줘도 좋겠다.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모둠 친구들과 극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미있는 읽은 후 활동을 할 수 있다.

### 1. 하루살이 초대하기

#### ■ 하루살이 초대하기(핫시팅)

- 그림책 속 하루살이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을 써 봅시다.
- 하루살이를 초대해 인터뷰해 봅시다. 하루살이로 초대된 학생은 자신이 하루살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하는 질문에 성의껏 대답합니다.

예:

질문하기	하루살이의 예상 대답
너는 바깥세상에서 여러 인물을 만났잖아.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양이야.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눈을 번뜩이며 쳐다보길래 얼른 피해서 날았어. 큰일 날 뻔했지.</li><li>● 눈 덮인 들판에 핀 하얀 꽃이야. 눈 위에서 꽃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li></ul>
하루살이야. 너는 네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알 수 있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나는 성충이 되기 전에 물속에서 오랫동안 애벌레로 살았는데 그때 다른 곤충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하루 정도밖에 살지 못해서 '하루살이' 라고 하더라고.</li></ul>

Tip. 하루살이뿐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을 초대해 인터뷰할 수도 있다. 하루살이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하루살이에게 편지쓰기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 ■ 내 삶과 연결하기

- 하루살이의 삶을 내 삶과 연결해 봅시다.
- 하루살이처럼 딱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건가요?  
예: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 하루살이는 자신이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끝을 아는 삶이 나올까요? 끝을 알 수 없는 삶이



나을까요?

예: 끝을 알 수 없는 삶이 더 좋아요. 희망과 설렘이 있어서 더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아요.

- 하루살이는 내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찾아다녔어요. 여러분이 요즘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저는 아직 제 흥미와 적성을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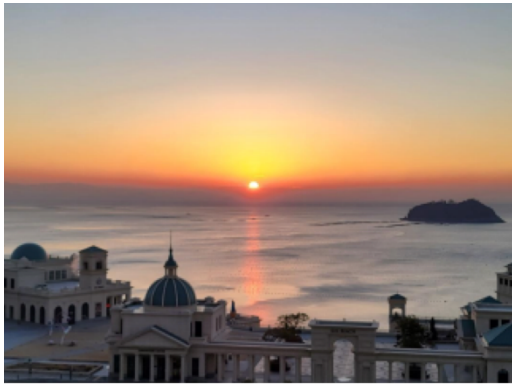
Tip. 그림책 내용과 하루살이의 삶의 태도 등을 내 삶을 연결하여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2. 내일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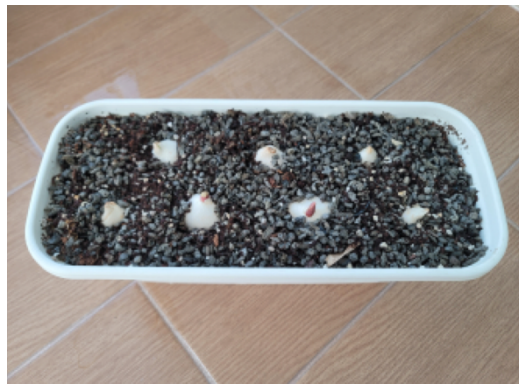
### ■ 내일 이미지 찾기

- 이미지프리즘 카드에서 '내일'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찾고 그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말이 떠올라서 해돋이 사진을 골랐어요.



내일은 화분에 심은 알뿌리에서 튼튼 새싹이 돌아날 걸 기대하며 화분 사진을 찍었어요.

Tip. '내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 공유할 수도 있다. 내일을 상상해보고 점, 선, 면, 형, 색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도 좋다.

### ■ 그림글자로 내일 표현하기

- 내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림글자로 나타내 봅시다.

예:



‘내일’을 꽃과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내일은 시간의 흐름 중 미래에 해당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가올 2023년이 토끼의 해 이기 때문에 토끼도 그렸어요.



### 3. 문장 완성하기

#### ■ 내일의 의미 탐색하기

-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미지의 세계, 호기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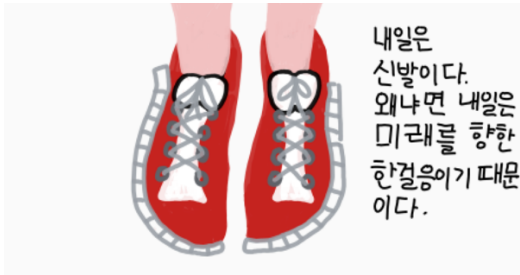
- 여러분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 내일을 다른 것에 빗대어 '내일은 \_\_\_\_이다.'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예: 내일은 설렘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분명 오늘과 똑같을리 없고 새로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 어울리는 그림을 넣어 일러스트로 표현해 봅시다.

예:



### 【선택 활동】 디자이너가 되어

#### ■ 글자 디자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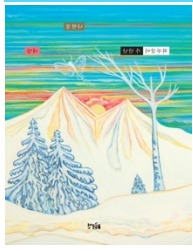
- 그림책 표지의 글자 배치를 살펴봅시다.

- '하루살이가 만난'과 '내일' 글자 사이 간격이 넓지요? 어울리지 않는 둘의 관계를 글자 간의 거리로 표현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만난 내일』은 보편적인 활자 배치에서 벗어나 행간, 자간 등의 배치를 다양하게 바꾸어 글자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장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 내가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림책 장면을 골라 글자 배치를 달리해 디자인해 봅시다.

Tip. 읽는 중 활동 중 타이포그래피 읽기 활동과 연계할 수 있다.

【참고 활동지 1】



## 등장인물 탐색하기

이름

- 그림책 속 등장인물의 모습과 하루살이에게 한 말을 통해 인물의 상황이나 처지를 탐색하고 인물의 마음과 성격을 짐작해 봅시다.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하루살이에게 한 말	상황이나 처지	인물의 마음, 성격

【참고 활동지 2】



##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이름

▣ 하루살이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

---

---

---

---

▣ 하루살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넣어 편지를 써 봅시다.

---

---

---

---

---

---

---

---

---